

연구논문

##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이주민 포용 인식에 대한 정치적 이념과 권위주의 성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하영\*\* · 김석호\*\*\*

정치적 이념은 통상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며, 이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로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한다. 실제로 구체적인 경제, 사회, 정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정치이념에 따라 그 현상들을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동일한 정치적 지향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사안이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반하거나 근본적인 사회 변화와 관련될 때 그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포용 이슈에 대한 보수와 진보 내의 이질성과 분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이 이주민 포용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내부 분화의 한 단면을 권위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정치적 진보 집단이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권위주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진보 내에서도 권위주의 성향이 낮을 때 이주민 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내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질수록 이주민 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우파 권위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민, 권위주의, 정치적 이념, 포용, 한국종합 사회조사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3049595).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hice015@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seokhokim@snu.ac.kr), 교신저자.

## I. 서론

정치적 이념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로서, 개인이 복잡한 사회현상과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입장을 취할 때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신념체계이다(Converse 1964). 탈원전 논쟁이나 차별금지법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쪽이 각자의 신념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안을 접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한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하에서, 정부와 사회가 개입하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 그리고 분배를 중시한다(Galston 1980).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의지하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사회변동과 미래에 바라는 모습을 둘러싸고 형성된다는 점은, 이 구분이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거스르거나 전면적인 파급력이 큰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Crawford 2017). 가령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이주민을 포용하는 문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문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더 극명하게 갈리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적 이념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각각 견고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사람들이 스스로 특정 정치적 성향을 소유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무력화되곤 한다(Neuman 1981). 진보 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격렬한 갈등이 표출된 교육, 식품, 주거, 보육, 안전 등의 이슈에서의 논쟁은, 단순히 정치적 보수와 진보의 구분만으로는 사람들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가 내부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근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부터 하청·도급용역 노동자에 대한 위협의 외주화, 운송 관련 특수고용직의 과로사 등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중대재해 처벌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스스로 진보라 규정하는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

자들 안에서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입법에 찬성하는 소수 의견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온건적 대안을 제시하는 친기업적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sup>1)</sup> 이처럼 진보와 보수의 구분보다 그 안의 이질성이 입장의 차이를 만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대엽(2009)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대립뿐 아니라 제반의 생활세계에서의 갈등이 빈번한 현상을 두고 작금의 한국 사회를 ‘신갈등사회’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2년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 되었는데, 난민과 무슬림 수용에 대해 기존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고전적인 균열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소위 난민 반대 집회가 수개월에 걸쳐 열리고 SNS를 통해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정보와 정서가 표출되었는데, 이를 전통적인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해 보인다. 그보다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보수와 진보 내부에서 분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분화가 난민과 무슬림 이슈에 한정되는 일회적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주민 이슈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내부적 이질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사람들이 현재 진행 중인 논쟁적 사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기존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상당히 약화했으며, 보수와 진보 내의 이질성과 분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러한 분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이 이주민 포용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내부의 분화가 왜 발생하는가를 권위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왜 권위주의 성향인가? 보수와 진보 내의 분화가 현실이고 이를 촉진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왜 하필 권위주의 성향인가?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이주민 포용 정도의 차이가 정치적 이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되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정치화되지 않았고, 보수와 진보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영 내에서도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이질적 입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화하지 않

1) 선담은 서영지 기자. 2020.11.16. “여당에 성난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여당 왜 머뭇대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0219.html>

은 사회 문제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가르는 데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아마도 ‘꼰대’로 희화화되는 권위주의 성향일 것이다(하상웅·이보미 2017). 즉 이주민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념과 권위주의 성향은 상호작용할 개연성이 높다(Esses et al. 2001; Oyamoto et al. 2006). 가령 진보 내에서도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가질 것이다. 보수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권위주의 성향이 정치화된 문제와 부딪힐 때는 일반적 의미의 보수주의와 잘 결합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주민 포용 문제처럼 덜 정치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작동할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보수성향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특정 정당/집단의 입장을 반영할 뿐 아니라,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세대적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적 보수성향과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 다원화를 거치며, 동일한 이념 내에서도 문화적 보수성향으로서 권위주의 성향은 보수와 진보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치이념 내의 분화

개인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과 정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고 그 정보의 속성도 다중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점을 세워 사회현상을 판단할 때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이라고 부른다(Bartels 2000; Converse 1964; Conover & Feldman 1981). 정치적 이념은 통상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며,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고 사회질서를 위해 어떤 정치적, 문화적 기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상, 신념, 가치, 원칙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마주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문화의 개인들이 고정된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일관된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이념을 보수와 진보라는 단차원적 스펙트럼으로 해석하는 관점의 한계는 분명하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구조가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등 이슈에 따라 존재할 수 있으며 2차원적 혹은 다차원적 정치이념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Conover & Feldman 1981; Carsey & Layman 2006).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단일한 정치적 이념이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은 각 이념 진영 내부의 분화 가능성을 높인다.

정치이념 내 분화는 한국의 정치 지형 내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무엇보다 대북관계와 국가안보가 주된 사회균열의 화두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 한국의 전통적 보수층이 형성·지속되어 왔던 바와 달리, 비교적 현대적 이슈인 국가의 통치권과 시민권에 대한 입장은 이념 진영 내에서도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박원호 2012). 2017년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한 강원택(2017)은 보수 유권자의 지지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로 나뉘며, 홍준표는 전통적 보수 집단의 지지를 받은 반면, 유승민은 상대적으로 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북지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강원택 2017). 한편 진보 진영 내에서도 분화가 발견되었는데, 장덕진(2008)은 한국의 진보가 전혀 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연령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진보 성향 유권자 4명 중 1명은 보수 후보에 투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낸 바 있다(장덕진 2008). 최근에는 ‘20대 남성 현상’을 만들어 낸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 이라든가, 진보 성향 내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능력주의에 대한 신뢰가 그 균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이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다. 하지만 생애 경험이나 성향 차이 등에 따라 이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격차 또한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2.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사회학적으로 한 공동체가 타자를 배제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설명된다. 첫째는 배제가 현실적인 집단갈등의 결과라는 관점이고, 둘째는 사회적 정체성의 표출이라는 관점이다(Kinder & Kam 2010). 첫 번째 입장을 대표하는 Sumner(1906)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원초적인 원리인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불가항적인 특징이라고 전제한다. Sumner에 따르면 경쟁으로 인

해 집단 간의 희소자원을 둘러싼 내집단 연대가 발생하며, 내집단 구성원과의 연대는 외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Sumner 1906).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경제학에 기반한 접근은,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형성 과정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이주민의 유입으로 자신들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이주민과 경쟁하는 계층이 이주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Mayda 2006; Burgoon 2014).

이처럼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현상은 국내에서도 나타난다. 정기선 외 연구(2016)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교적 학력이 낮고, 가구 소득이 낮으며, 미취업자일수록 이민의 경제적 기여를 낮게 간주하고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높게 보며,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정기선 외 2016). 이는 실제 이주민과 경쟁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이민 및 이주민 이슈를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타지펠(Tajfel)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다. 이데올로기나 문화의 차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단순히 상상적인 기준이나 무작위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되었을 때에도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당연시되는 것이다. 타지펠은 내집단 선호가 외집단에 대한 반감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하며, 그 이유는 특정 집단의 소속감이 구성원들에게 정체성(sense of identity)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주수용국 국민의 국가정체성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정체성은 그 성격이 법적, 시민권에 관한 것인가, 혈통을 중심으로 한 것인가에 따라 시민적 정체성과 혈통적(종족적, 인종적) 정체성이 구분된다(Smith 1991).

국가정체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종족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정기선 외 2011). 또한 혈통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수용에 부정적이며, 참여적 시민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편적 권리 수용에 긍정적이지만, 법적·형식적 시민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주민 유입에 따른 집합적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황정미 2010). 물론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시민적 정체성을 과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이주민이 생활세계에서 선주민처럼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따르는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Kim, Noh & Yang 2015).

현실적 집단갈등이론과 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국가적·국민적·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엇보다 이주민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거주하지 않으며, 이주민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혜택이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이주의 사회적 혜택은 내국인 노동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주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판매직, 부동산업 종사자에 한정되지만, 그 비용은 제한된 자원을 위해 경쟁하는 모든 내국인 주민이 나눠서 부담한다. 그 자원들은 일자리는 물론, 복지서비스와 공공재,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포함하며, 내국인이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적용 과정까지도 비용으로 포함된다.

이상의 요인들이 결집하고, 실업률이나 경기 호황/불황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만났을 때,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모종의 공공압력(public pressure)을 형성하여 국가의 이민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Money 1996). 일례로, 1961년 영국에서는 본래 보수당에 반대하여 친-이민자적 입장을 견지하던 노동당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자 선거구 과반 확보를 위해 반-이민정책으로 전환하였다(Money 1996). 이에 대해 Zolberg(1999)는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민족 세계시민주의자와 고용주가 친-이민연합을 형성하는 반면, 내국인 노동자와 지방권력, 전통적 국민국가 지지자는 반-이민연합을 형성하여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하였다(Zolberg 1999). 이처럼 이주로 인한 불균등한 비용과 혜택의 부담은 지역 수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르게 만들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권획득이라는 정치적 역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설명은 서구에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설명들이 이주민에 대한 수용과 포용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결정되는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주민 문제라는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이 개입하고, 개인은 이에 따라 이주민을 어느 수준까지 포용

해야 하는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정치적 이념의 구분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맺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정치적 이념의 구조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혈통적 민족주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는 반면, 자유주의적 이념과 제도, 시민성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한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내집단 편향과 타민족 배제요인으로서 정치적 극우파의 득세에 기여하고 있다(Smith 1991). 최근 유럽에서 난민과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현실 정치에 동원되는 메커니즘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정치적 극우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인종주의(racism), 타민족혐오(xenophobia), 민족주의(nationalism), 반민주주의(anti-democracy), 강한 국가(strong state)로 구분하기도 한다(Mudde 2007). 이처럼 정치적 극우는 일반적으로 작은 국가를 옹호하는 정치적 보수와 달리,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와 이주민 배척에 호의적이다.

이주민에 대한 이러한 배척은 보수와 우파의 대표적인 정치적 주장이 되었고, 진보와 좌파는 상대적으로 이주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박기성·박재정(2018)은 정치적 극우가 등장하는 기회구조를 다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고소득 탈물질주의적 좌파에 대한 반동으로 경제, 안보, 질서를 재강조하는 ‘조용한 반혁명’의 결과이며, 둘째 사민당의 중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머물게 된 노동자계층이 사민당에 대한 불만을 크게 느껴 극우정당을 지지하고픈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셋째는 유럽연합의 성격이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나아갈수록, 유럽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회의주의자가 극우정당의 지지기반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이주민과의 유혈충돌이나 폭력사태, 테러 등의 계기적 사건이 되어 정체성 폭력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정체성 폭력이란 ‘그 발단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이든 간에 어떤 고정불변의 단일 정체성이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라는 환상이 길러낸 폭력’(백태현 2016; 박기성·박재정 2018: 144)을 의미한다.

Kauff et al.(2013)은 국가별로 개인의 권위주의적 태도(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가 이주민과 소수인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문화주의 이념이 지배적인 국가의 국민일수록 권위주의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강력하고, 마찬가지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비디오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권위주의가 높은 사람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Kauff et al. 2013). 하지만 정치적 이념, 혹은 국가정체성만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설명되기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컨대 한국인들은 피부색은 물론, 출신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있는지, 한국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국어를 잘 하는지, 출신국의 문화가 한국과 얼마나 유사한지, 영어를 잘하는지 등등에 따라 이주민을 다양한 범주들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주민 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출신지역에 따라 계량화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거의 없는 북한 이탈주민보다도 미국인에 대해 더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는 반면, 동남아시아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높은 거리감을 보인다(김석호 외 2013).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때 출신국의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며, 출신국의 물질적 수준을 사회적 인정 척도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 및 무시의 태도가 후진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과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유승무·이태정 2006).

해방 후 오랜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우월감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상시 전시상황이라는 근대사적 배경은 정치권이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자원의 기반이 되었다(홍태영 2018). 게다가 출입국정책의 시행 이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집단인 동포는 탈식민주의 이후 혈통적 민족 포용정책하에 입국한 이주민 집단이다. 즉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이주민을 배제하기보다는 동원하는 논리로 더 자주 사용되었고, 오히려 문화적, 민족적 이질성은 없지만 정치적, 이념적 이질성이 높은 외집단(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는 데 동원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단순히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관용적/비관용적 태도, 혹은 권위적인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 4. 정치적 이념, 권위주의,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태도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한 강조는 Adorno et al.(1950)의 반유대주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따르면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를 철저히 고

수하며, 관습을 위반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권위에 복종한다. 이들은 힘과 권력에 대한 집착, 상상력과 관용에 대한 무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소주의, 세상이 야생적이며 위험하다는 데에 확신을 갖는다는 특징을 보였다(Adorno et al. 1950). 이후 진행된 경험연구에서도 사회적 통합의지가 강한 사람은 개인적 자주성에 대한 존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아이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예절, 순종, 상상력,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태도는 정치적 불관용(political intolerance)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때 정치적 불관용은 외부집단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비관용 잣대를 통해 자민족 중심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Stenner 2000). 예컨대 특정한 종교적 표식이나 생활습관에 의하여 문화적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집단에 대해서는 관용이 줄어들고, 비민주적 사고나 강력한 통합에의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적 관점 모델은 상징적 이상, 정치적 문화, 세계관, 집단 정체성, 가치관, 심리학적 특성과 같은 규범적 지향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최근의 현상들을 설명한다(O'KEEFE 2019). 권위주의 모델은 누구나 자신의 내집단의 우월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갖는 타집단 배제에서 나아가, 문화적 통일성을 중시하거나 사회 불평등의 불가피성에 더 수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이민적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기에 적합하다(Esses et al. 2001; Oyamoto et al. 2006).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는 개념적으로 정치적 보수성향과 문화적 보수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 보수성향은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보수를 의미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 내의 정당 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반면, 문화적 보수성향은 개인의 권위적 성향이나 문화적 보수주의, 전통주의와 같이 정치성향과 연결되지 않은 보수적 성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차이에 대한 개인의 관용 수준, 전통과 규율에 대한 순응 정도, 종교적 신념, 가부장적 태도 등으로 측정된다. 사실 정치적 보수성향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특정 정당/집단의 입장을 반영할 뿐 아니라,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세대적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적 보수성향과 독립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여러 영역에서 아노미 상태를 관찰하고 경험한 한국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적 태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정치성향을 가르는 골짜기 문제들이 국가와 지역, 세대 등에 따라 모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볼 때 정치적 진보/보수성향과 문화적 보수주의는 개념적으로는 분리시킬 수 있다.

문화적 보수주의에 대해 심리학자 Altemeyer(1981)는 아도르노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우파 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이론을 정립하였다(Altemeyer 1981). 이때 우파 권위주의자란 기준에 확립된, 정당하다고 인지된 권위에 대하여 강한 정도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는 편견과 인종주의, 극우 성향을 예측하는 변수로 이용된다. 이를 발전시킨 Duckitt(2000)은 우파 권위주의를 불변의 개인적 성격 특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성향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집단적 안보에 대한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태도로 규정하였다(Duckitt 2000). 여기서는 우파 권위주의의 다차원성이 중요한데, 각각을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보수주의(Conservatism), 전통주의(Traditionalism)로 구분한다(ACT). 이때 권위주의는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을 의미하는데, 이는 ‘관대함, 면죄부, 관용, 부드러움, 사회적 규칙과 법의 위반에 비해 엄격하고, 강인하고, 가혹하고, 징벌적이고, 강압적인 사회 통제를 선호하는 태도적 신념’을 말한다. 보수주의는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으로, ‘기존의 사회적, 집단적 권위와 기관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고분고분하며 순종적이고 존경하는 태도를 비판적이고 의문적, 반항적, 반대적인 태도에 비해 선호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주의는 인습주의(conventionalism)로, ‘전통적이고 구시대적인 사회규범, 가치관, 도덕성을 현대적이고, 자유주의적, 세속적인, ‘대안’ 가치, 보헤미안 규범과 도덕성에 비해 선호하는 태도’를 가리킨다(Duckitt et al. 2010).

국내에서도 권위주의적 태도는 이주민 집단을 포함한 장애인과 노인,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학교폭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관재 외 1999; 신학진 2013; 송경재 외 2004; 이종원 외 2014). 기본적으로 우파 권위주의 이론은 보수적인 정치적 지향과 권위주의적 성향을 개념적으로 연결시킨다. 이상신(2015)은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정되는 요인을 탐구하였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은 물론, 정부 비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 권위에 대한 높은 순종이 한국사회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신 2015).

권위주의적 태도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우파 권위주의가 정치적 보수주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치적 보수와 편견적 태도를 개별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보는 입장(Wilson & Sibley 2013)이다. 하지만 우파 권위주의가 민족중심적이며 편견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효과는 사실상 정치적 우파의 효과이며, ‘순수하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민족중심적 태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Radkiewicz 2016). 한편, 권위주의적 태도가 미국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유의미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2016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클린턴과 샌더스 지지자를 나누는 중요한 골짜기가 되기도 하였다(Wronski et al. 2018).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이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각 이념 진영 내의 이질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진영 내 이질성을 촉진하는 기제는 권위주의적 성향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향이 이주민에 대한 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권위주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라는 견고한 구분 내에서 이질적인 태도가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적인 단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진보 내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유지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사회적 진보이면서 경제적 보수 또는 경제적 진보이면서 사회적 보수 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자료와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양질의 전국 단위 사회조사로, 다단계 지역확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의 편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집·조사된다. 2016년에 수집된 전체 응답자 수는 1,052명이며, 이 연구에서는 항목 무응답 등을 제외한 924명의 사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는 10점 척도로 측정된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용 정도’이다. 문항은 ‘귀하는 다음의 각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가장 적은 값(1)은 ‘이민자(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는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를, 가장 높은 값(10)은 ‘이민자(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는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상정하고, 더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쪽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독립변수인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점 척도로 조작하여, 진보(매우 진보적+다소 진보적), 중도, 보수(매우 보수적+다소 보수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변수로 권위주의적 태도는 7가지 RWA 문항('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인도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한 변수들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그밖에 통제변수에는 성별(여성=1)과 연령(연속변수), 혼인 상태(배우자 있음=1), 교육 수준(고졸 미만, 고졸, 4년제 대학재학/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중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월 평균 가구소득(연속변수), 취업 경험 유무 및 직종, 거주 지역(수도권=1), 종교(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를 포함시켰고, 선행연구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국가자긍심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먼저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조사 당시를 기

준으로 표본의 45.15%는 남성, 54.85%는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49.6세(SD=18.6)이다. 전체의 59.6%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8.08%가 취업 경험이 없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445.1만 원(SD=1173.9)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자가 25.29%, 고등학교 졸업자가 23.57%,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전문대에 재학 중 혹은 졸업, 대학 중퇴자가 20.72%,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0.42%를 차지한다. 표본의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이 45.58%로 가장 많고, 불교가 23.41%, 개신교 20.84%, 천주교 9.23%, 기타가 0.95%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43.16%, 비수도권 거주자가 56.84%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는 1~10점 중 평균 5.92점(SD=2.80)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권위주의적 태도는 7개 문항을 모두 합한 평균이 1~7점 중 평균 3.85점(SD=1.21)로 밝혀졌다. 정치적 성향의 경우 진보가 31.76%, 중도가 37.56%, 보수가 30.68%로 나타났다. 세대 구분은 20대가 18.44%, 30대 16.54%, 40대 16.16%, 50대 16.83%, 60대 14.07%, 70대 이상이 17.97%로 나타났다. 각 연령집단은 세대적 특징을 이해하기 쉽도록 출생 연도를 함께 표시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시기인 2016년 기준 20대는 1987년부터 1997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이며, 30대는 1977년부터 1986년 출생, 40대는 1967년부터 1976년 출생, 50대는 1957년부터 1966년 출생, 60대는 1947년부터 1956년 출생, 70대 이상은 1947년 이전에 출생한 자이다.

&lt;표 1&gt; 표본의 특성

(단위: %)

변수	항목	%
성별	여성	54.85
	남성	45.15
연령*	20대('87~'97 출생)	18.44
	30대('77~'86 출생)	16.54
	40대('67~'76 출생)	16.16
	50대('57~'66 출생)	16.83
	60대('47~'56 출생)	14.07
	70대 이상('47 이전 출생)	17.9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25.29
	고등학교 졸업	23.57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졸업	20.7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0.42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59.60
	배우자 없음	40.40
거주 지역	수도권	43.16
	비수도권	56.84
정치 이념	보수	30.68
	중도	37.56
	진보	31.76
종교	무교	45.58
	불교	23.41
	개신교	20.84
	가톨릭교	9.23
	기타	0.95

\* 분석에서 연령은 연속변수 혹은 세대집단(20-30대/40-50대/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표본의 기본적인 연령대 파악을 위해 10세 기준으로 제시함.

<표 2>는 정치적 이념별 권위주의적 태도와 이주민 포용 정도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교차표이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권위주의적 태도는 보수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4.17로 가장 높고, 중도가 3.87로 전체 평균과 유사하며, 정치적 진보는 3.52로 가장 낮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는 정치적 진보에서 6.18로 가장 높고 정치적 보수에서 5.84, 중도에서 5.8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정치이념 성향이 보수일수록 높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는 진보에서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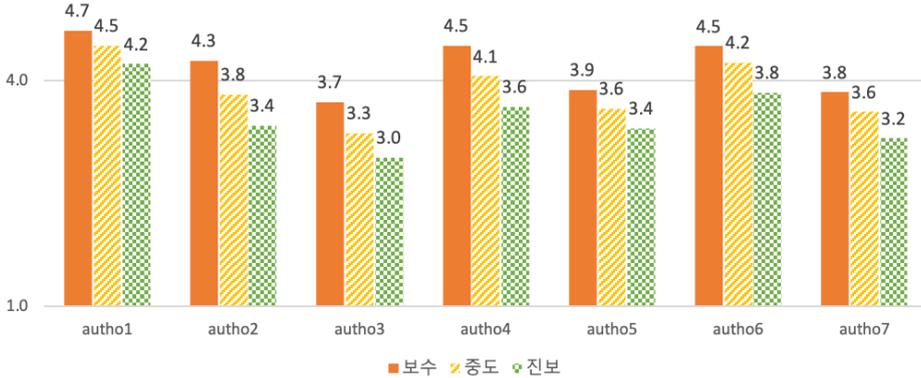
&lt;표 2&gt; 개인의 정치적 이념별 권위주의적 태도와 이주민 포용 정도

	권위주의적 태도(1~7)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1~10)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전체	3.854	1.212	1,050	5.921	2.799	1,039
보수	4.173	1.196	311	5.841	2.885	309
중도	3.865	1.084	381	5.822	2.679	377
진보	3.522	1.307	323	6.183	2.835	322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 권위주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는 둘 간의 관계가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그림 1>은 권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7가지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여준다. 각 문항은 4점(반대도 찬성도 아님)을 중간값으로 1점(전적으로 반대)부터 7점(전적으로 찬성)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수집단은 정치적 중도나 진보 성향 집단보다 강한 동의 정도를 보이며, 진보와 보수 간에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2번(‘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과 4번(‘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이다. 전반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문항은 1번(‘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 차이도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반대 비율이 더 높은 문항은 3번(‘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으로, 보수성향은 평균 3.7, 진보 성향은 평균 3.0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정치적 보수와 진보 집단 모두, 좌우 양쪽에 존재할 수 있는 “‘극단주의’에 대한 국가적 제압”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국가의 무력진압’이나 ‘아이들이 배워야 할 덕목으로서 순종’, ‘국가 지도층을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 반면 다른 가치보다도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정치적 보수와 진보 집단 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역시 보수와 진보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권위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가 동질적인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진보와 보수 내에서도 이질성이 존재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 정치적 성향별 권위주의적 태도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3.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6.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인도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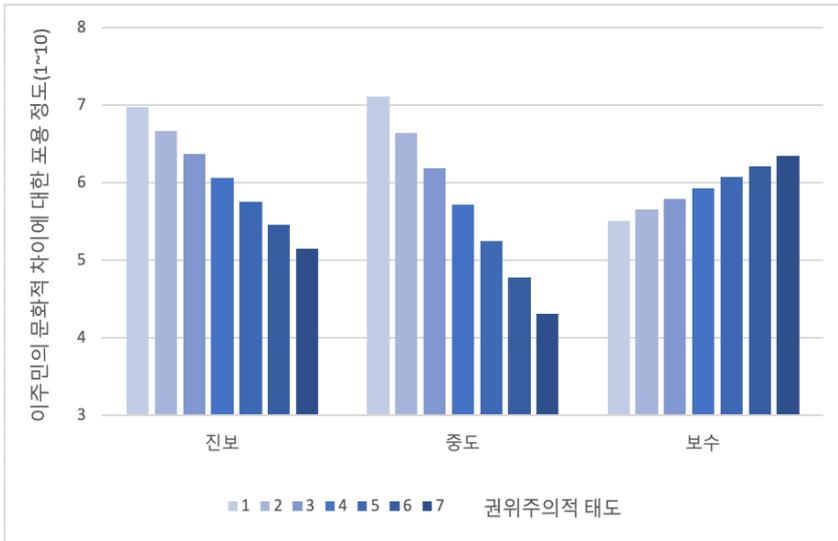
## 2. 정치적 성향이 이주민 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뒤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OLS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형1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모형2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함께 권위주의적 태도가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1의 분석결과, 정치이념 성향이 진보적인 집단에 비해 중도적인 집단이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말하면 진보가 중도보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태도와 정치적 이념의 효과를 함께 살펴본 모형2에서는 정치적 이념이 이주민 포용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아질 확률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lt;표 3&gt; 이주민 포용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정치이념 성향(base outcome=진보)						
중도	-0.436	0.222 <sup>†</sup>	-0.367	0.223	0.306	0.716
보수	-0.189	0.237	-0.107	0.238	-1.909	0.754*
권위주의적 태도						
			-0.212	0.083*	-0.304	0.126*
정치이념 성향 x 권위주의적 태도						
중도					-0.164	0.183
보수					0.444	0.184*
성별(여성=1)						
	-0.261	0.189	-0.299	0.189	-0.298	0.188
연령						
	-0.015	0.008 <sup>†</sup>	-0.011	0.008	-0.013	0.008
혼인상태(유배우자=1)						
	0.446	0.210*	0.444	0.210*	0.479	0.209*
교육수준 (base outcome=고졸 미만)						
고졸	0.134	0.308	0.242	0.310	0.186	0.309
대재/전문대/대학 중퇴	0.009	0.388	0.040	0.387	-0.038	0.386
4년제 대졸 이상	0.691	0.341*	0.655	0.341 <sup>†</sup>	0.565	0.340 <sup>†</sup>
월 평균 가구 소득						
	0.144	0.094	0.147	0.094	0.152	0.093
직업분류(base outcome=근무경험 없음)						
입법공무원, 고위 관리직	-1.978	0.851*	-1.982	0.848*	-2.076	0.845*
전문직	-0.230	0.335	-0.278	0.334	-0.251	0.333
기술자 및 준전문직	-0.116	0.529	-0.151	0.528	-0.110	0.525
사무직	0.082	0.353	0.035	0.353	0.017	0.351
서비스 및 시장판매직	-0.138	0.350	-0.163	0.350	-0.038	0.350
농업 및 어업 숙련직	-0.045	0.494	-0.135	0.493	-0.062	0.49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0.730	0.536	-0.801	0.535	-0.738	0.53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원	-0.018	0.564	-0.002	0.562	0.031	0.560
단순노무직	-1.057	0.561 <sup>†</sup>	-1.060	0.559 <sup>†</sup>	-0.977	0.558 <sup>†</sup>
거주 지역(수도권=1)						
	-0.052	0.191	-0.052	0.190	-0.072	0.190
종교(base outcome=무교)						
불교	0.050	0.241	0.060	0.240	0.046	0.239
개신교	0.296	0.246	0.330	0.245	0.336	0.244
천주교	-0.194	0.336	-0.239	0.335	-0.334	0.335
기타	-1.406	0.935	-1.466	0.932	-1.520	0.928
국가자긍심						
	0.039	0.128	0.093	0.129	0.106	0.128
상수						
	5.692	0.843***	6.091	0.855***	6.469	0.920***
<i>N</i>	924		924		924	
<i>R</i> -squared	0.0659		0.0726		0.0834	
Adj. <i>R</i> -squared	0.0409		0.0468		0.0557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5$



<그림 2> 권위주의적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치적 이념이 권위주의 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념 구분은 이주민 문제에 대해 명석하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권위주의적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같은 정치성향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3의 정치이념 성향과 권위주의적 태도의 상호작용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 2>를 보면, 보수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질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진보와 중도 집단은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질수록 포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을 한국의 고전적 좌우 구분 틀에 고정시키지 않는 무당파 혹은 넓은 의미의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집단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중도 집단이 보수보다는 진보 집단과 더 유사한 경로를 보이는 점은, 한국의 정치지형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회정치적 소수집단의 권익과 결과적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알려진 정치적 진보집단에서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는 흥미로우며, 본 연구가 세운 정치적 진보 내의 이념적 분화 현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정치적 보수집단이 일종의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상승하는 결과

또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지나온 거시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 어떻게 권위주의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현되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가지 가설은 권위주의적인 보수집단의 경우, 이주민 자체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외부의 타자이자, 온정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포용적인 것처럼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국가와 국민(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자신의 인지적 경계가 이주민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미미한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려운 타자, 혹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다 맥락적인 이해를 위해 세대별로 정치적 성향과 권위주의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표 4>). 연령집단별로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30대는 정치적 진보 집단에 비해 정치적 보수 집단이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높아졌으나, 여타 세대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20~30대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이념과 권위주의적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진보와 중도에서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정치적 보수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그림 2>에서보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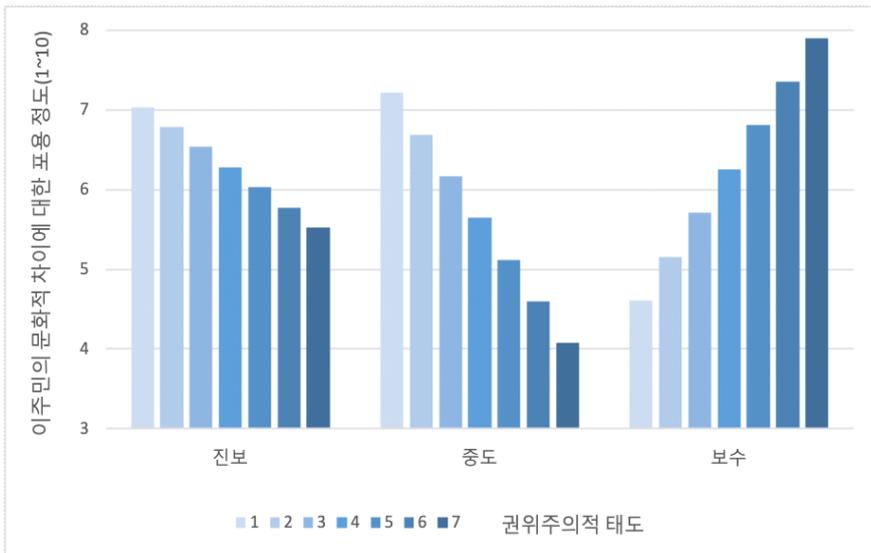
<표 4> 세대별 이주민 포용 정도에 대한 정치적 성향 상호작용 효과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정치이념 성향(base outcome=진보)						
중도	0.444	1.142	1.741	1.143	-0.647	1.977
보수	-3.230	1.471*	-0.208	1.313	-2.230	1.774
권위주의적 태도	-0.253	0.225	-0.287	0.191	-0.312	0.316
정치이념 성향 x 권위주의적 태도						
중도	-0.270	0.320	-0.423	0.288	0.004	0.441
보수	0.802	0.399*	0.026	0.336	0.488	0.388

성별(여성=1)	-0.086	0.305	-0.790	0.323*	0.061	0.447
연령	0.016	0.034	-0.019	0.029	-0.043	0.029
혼인 상태(유배우자=1)	-0.355	0.403	0.729	0.425 <sup>†</sup>	0.701	0.470
교육 수준 (base outcome=고졸 미만)						
고졸	0.068	1.272	0.118	0.557	0.021	0.526
대재/전문대/대학 중퇴	-0.309	1.216	0.045	0.660	-0.406	1.394
4년제 대졸 이상	-0.090	1.225	0.453	0.583	1.253	0.706 <sup>†</sup>
월 평균 가구 소득	0.254	0.177	0.286	0.214	-0.043	0.157
직업분류(base outcome=근무경험 없음)						
입법공무원 고위 관리직	-0.440	1.887	-2.758	1.328*	-2.434	1.483
전문직	0.246	0.492	-0.370	0.500	-1.541	1.000
기술자 및 준전문직	0.694	0.944	-1.044	0.739	0.715	1.240
사무직	0.830	0.486 <sup>†</sup>	-0.609	0.557	-0.881	1.098
서비스 및 시장판매직	-0.193	0.666	-0.042	0.506	-0.361	0.773
농업 및 어업 숙련직	0.013	1.866	0.768	0.920	-0.387	0.7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0.804	1.201	-0.980	0.766	-0.745	1.032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원	-0.594	1.552	-0.272	0.787	0.025	1.055
단순노무직	1.194	1.505	0.121	1.221 <sup>†</sup>	-1.891	0.816*
거주 지역(수도권=1)	0.054	0.301	-0.124	0.313	-0.334	0.429
종교(base outcome=무교)						
불교	0.006	0.447	-0.163	0.393	-0.035	0.485
개신교	0.737	0.393 <sup>†</sup>	0.651	0.393 <sup>†</sup>	-0.582	0.547
천주교	-0.645	0.540	-0.146	0.576	-0.052	0.682
기타	-5.088	2.604 <sup>†</sup>	-2.133	1.543	-0.484	1.466
국가자공심	0.084	0.227	0.100	0.208	0.104	0.274
상수	5.181	2.087*	6.206	2.060***	9.696	2.993***
<i>N</i>	324		319		281	
<i>R</i> -squared	0.1000		0.1260		0.0885	
Adj. <i>R</i> -squared	0.0213		0.0450		-0.0087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5$

한국의 현대사는 해묵은 민족적,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보수주의의 의미가 서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특히 전쟁을 거치며 보수주의의 의미는 북한과의 관계, 국가안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 등을 떼어놓고 논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 즉, 자유시장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옹호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치적 성향으로서 ‘보수주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하지만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성향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웅·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룰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문화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인 집단을 형성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문화적 보수집단과는 차이를 두면서 자신의 경제적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권위주의적 태도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편견 정도가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 20~30대 권위주의적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 V. 토론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 포용에 있어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 분기하는 경향이 약화했으며, 보수와 진보 내의 분화가 사실에 더 가깝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권위주의 성향에 주목했는데, 이는 권위주의 문화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생활세계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정수복 2008). 즉 본 연구는 정치적 이념 또는 성향이 이주민 포용에 미치는 영향이 권위주의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치적 보수성향을 가진 집단에 비해 정치적 진보나 중도 성향을 가진 집단이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치적 이념이 이주민 태도에 대해 갖는 효과가 권위주의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 이유가 세대 간 차이는 아닌지 확인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2~30대 진보 내의 권위주의 성향에 따른 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연령집단의 생애사적 주기와 세대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해석할 수 있다. 우선 2016년 조사 기준 20~30대는 외환위기 이후 확고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시기에 1차 사회화 과정인 성장기를 보낸 세대로서, 스스로가 ‘정치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경쟁적 시장주의와 공정한 룰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터득해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윗세대가 구분지어 놓은 정치이념적 보수는 아니며, 오히려 정치적 중도나 진보 성향에 가깝지만 그 의미 역시 윗세대가 보는 정치적 진보나 중도와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포용 정도를 정치적 이념과 권위주의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정치적 이념 내의 분화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가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그 분화의 정도는 2~30대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세대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밝혔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수 내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질수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가 왜 높

아지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지점에 대해 더 심층적인 연구와 설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17.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6(2): 5-33.
- 김석호·신인철·하상웅·정기선. 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 박기성·박재정. 2018.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133-152.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박찬욱·강원택 편. 서울: 나남.
- 송관재·이훈구·박수애·홍영오. 1999. “권위주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999: 219-221.
- 송경재·김묘성·김지훈·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과 공감능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4(2): 1-9.
- 신학진. 2013. “중년층의 권위적 성격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합리화, 인지왜곡, 애매모호효과민성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3(2): 475-492.
- 알포트(Allport, Gordon W.). 1993. 《편견의 심리》 이원영 역. 서울: 성원사.
- 유승무·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9(2): 275-311.
- 이상신. 2015.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우파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연구》 8(2): 39-67.
- 이종원·윤상연·김혜진·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 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1(1): 109-135.
- 장덕진. 2008.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45-58.
- 정기선·정영탁·박성일.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조사.”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박성일·박미화·현리정. 2016.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상원·권구순. 2014. “권위주의적 성격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거리

- 김: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27: 105-133.
- 정혜영·서보순. 2012.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117-145.
- 조대엽. 2009.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에의 위기.” 《한국과 국제정치》 25(1): 179-210.
- 하상응·이보미. 2017.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의 심리적 결정 요인들.” 《한국정당학회보》 16(1): 5-37.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152-184.
- 홍태영. 2018.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 : 박정희 시대와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 《한국정치연구》 27(1): 1-30.
- Adorno, T.W., E. Frenkel-Brunswik, D.J. Levinson, and R.N. Sanford.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Altemeyer, Bo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Bartels, L.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35-50.
- Burgoon, B. 2014.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Europe.” *World Politics* 66(3): 365-405.
- Carsey, Thomas and Geoffrey Layman. 2006. “Changing Sides or Changing Minds?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464-477.
- Crawford, Jarret T. 2017. “Social and Economic Ideologies Differentially Predict Prejudice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ut Social Issues Are Most Divisive M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3):383-412.
- Conover, Pamela J. and Stanley Feldman.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4): 617-645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 Duckitt, John. 2000. “Culture, Personality and Prejudice.” pp.89-107 in *Political Psychology: Cultural and Cross-Cultural Foundations*, edited by Renshon, S. and Duckitt, J.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Duckitt, J., Boris. Bizumic, Steaphan Krauss, avnd Edna Heled. 2010. “A Tripartite Approach to Right-Wing Authoritarianism: The Authoritarianism-Conservatism-Traditionalism Model.” *Political Psychology* 31(5): 685-715.
- Esses, V.M., J.F. Dovidio, L.M. Jackson, and T.L. Armstrong. 2001. “The Immigration

-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89-412.
- Galston, William. 1980. *Justice and the Human Go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uff, M., F. Asbrock, S. Thörner, and U. Wagner. 2013. “Side Effects of Multiculturalism: The Interaction Effect of a Multicultural Ideology and Authoritarianism on Prejudice and Diversity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3):305-20.
- Kim. Seokho, Minha Noh, Jonghoe Yang. 2015. “What Made the Civic Type of National Identity More Important among Koreans? A Comparison between 2003 and 2010.” *Development and Society* 44(3): 535-563.
- Kinder, Donald R. and Cindy D. Kam 2010. *US against THEM: Ethnocentric Foundations of American Opin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yda, Anna Maria. 2004.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510-530.
- Money. 1997. “No Vacancy: The Political Geography of Immigration Control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685-720.
- Mudde, C.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uman, W. Russell. 1981.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Two Dimensions of Political Think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6): 1236-1268.
- O’KEEFE, D.J. 2019. “Perception vs. Reality: Testing the Viability of a Psycho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Group Threat Approach to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the Role of Ideological and Personality Traits in Perception Biases.” *Journal of Psychohistory* 46(3): 179-206.
- Oyamot Jr, C.M., E. Borgida, and E.L. Fisher. 2006. “Can Values Moderate the Attitudes of Right-Wing Authoritar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4): 486-500.
- Radkiewicz, P. 2016. “Does Authoritarianism Imply Ethnocentric National Attitudes: A Revised Look at the ‘Authoritarian Triad’ and Right-Wing Ide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224-236.
- Smith, Anthony D.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 Stenner, Karen. 2009. “‘Conservatism’, Context-Dependence, and Cognitive Incapacity.” *Psychological Inquiry* 20(2/3): 189-195.

- Sumner, William Graham. 1906. *Folkways: A Study of Mores, Manners, Customs, and Morals*.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 Wilson, M.S. and C.G. Sibley. 2013.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n Political Conservatism." *Political Psychology* 34(2): 277-284.
- Wronski, J., A. Bankert, K. Amira, A.A. Johnson, and L.C. Levitan. 2018. "A Tale of Two Democrats: How Authoritarianism Divides the Democratic Party." *The Journal of Politics* 80(4): 1384-1388.
- Zolberg. 1999. "Matters of State: Theorizing Immigration Policy." pp. 71-93 in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edited by Hirschman, C., P. Kasinitz, and J. DeWin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접수 2020.10.29; 수정 2020.10.29; 게재확정 2020.11.23>

## **Differentiation of Political Ideology among Korean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Political Ideology and Authoritarianism on Perception toward Immigrants**

Hayoung Cho  
Seokho Kim

Political ideologies often fall under either conservatives or liberals, and such political orientation functions as an interpretational framework through which people perceive social phenomena. Indeed, it is a part of our common sense that, when faced with specific social, political, or economic issues, individuals tend to comprehend them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ideology they have. However, political stances may vary even among the people sharing particular political ideology, especially when an issue at hand challenges traditional norms or is relevant to fundamental social chang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versification of stances toward immigrants within the conservatives and the liberals each. To meet this goal,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conservatism and liberalism on attitude toward the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reveals a section of internal differentiation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 of authoritarianism. The results have shown that liberals often relates to tolerance toward immigrants in general, but only without the mediation effect. Considering the mediation effect of authoritarianism, the level of tolerance among liberals is higher when authoritarian tendencies are lower, whereas the level varies depending on authoritarian tendencies within conservatives.

Key words: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authoritarianism, political ideology, perception of immigrants, tolerance toward immigrant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